



밴드 ‘차세대’의 보컬 이찬희는 때로는 개구지게, 때로는 절박하게 노래한다.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굽다가도 한순간 아이처럼 웃는다. 유독 추위가 덜했던 1월의 어느 날, 마이크와 악기를 내려놓은 그를 만났다. 그는 줄곧 ‘지금’을 말했다. 요즘 나는, 오늘은, 지금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진 말들이 말랑한 속살을 보인다. 이찬희는 이 순간 가장 솔직하다.



## 이찬희는 지금도 계속

정규 앨범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ClubFF’ 무대에 섰는데 어땠나요?

덕분에 오늘 촬영 즐거웠어요. 이번 달에 차세대가 6주년을 맞았네요. 6년 전, 한 인터뷰에서 ‘합주를 치졸하게 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공연이 시험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모범생 같은 태도로 느껴져서 신선했어요.

그래서인지 무대 위에서 굉장히 몰입하는 모습이에요.

무대를 꾸밀 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투명하고 싶다는 마음과 상반되네요.

보통 주 1~2회는 공연을 하는 편이에요. 어제는 간만에 술을 전혀 안 마시고 한 공연이었어요.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오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금주했거든요. 오랜만에 세상과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혹시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차가운가?’, ‘관객분들과 수영하듯 즐기고 있나?’ 자문했어요. 생경한 느낌이었죠.

네, 여전히 비슷해요. 저는 정말 투명하고 싶고, 본심만 말하고 싶은데 멤버들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합주할 때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비롯된 치졸함을 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심은 ‘너희랑 이거 함께해서 즐거워’인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무엇을 더 받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하지만 저에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건 맞아요. 그 고집을 지키면서도 관객분들과 더 끈끈하게 어울리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피부로 체감되는 밴드 공연 신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주시는 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뭐든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대에서는 지금이 절정인가 싶다가도 불과 0.5초 만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감각이 돼요. 말이 좀 거창 하지만, 무대는 그런 연속성의 세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려고 해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똑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멋지게 하면 되지 그게 목표라고 말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매일 하고, 공연 때 입을 옷도 서로 봐줘요. 한 명이 와이드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나오면 ‘작업복 같은데? 안전모를 한번 써 봐’하는 식이에요. 우리 스스로 일종의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쇼를 만들 때 ‘과한가’라는 질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난한가’라는 질문에는 한없이 엄격해야 해요.

그러게요. 저에게 이런 양가감정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캐릭터 같은 사람. 저는 그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 Interview

이찬희는 지금도 계속

취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있었어요. 처음 검정치마를 알게 됐을 때.

이제는 반대로 제 취향이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웃음) 누군가는 이런 저를 '진성 힙스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취향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계속 자기 취향을 주변에 뿌리고 다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곡을 만들면 누가 들어도 좋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멤버들 앞에서도 안 부르는데, 고래라는 친구는

다르거든요. 주야장천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곡이 생기면 곧바로 단체 채팅방에 보내요.

그렇게 취향을 뿌리다 보면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거 없나 찾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노래가 궁금해요.

요즘은 'Wings'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들어요. 폴 매카트니가 비틀스 해체 후

결성한 밴드인데, 라이브 앨범 중에서

'Maybe I'm Amazed'를 추천하고 싶어요. 들을 때마다

경이로울 정도예요. 샤워할 때 꼭 듣습니다. 존 레논과

리암 갤러거도 정말 좋아하고요. 저에게 그들은

한 시대를 담고 있는 계보 같은 존재인데요,

그다음이 차세대면 좋겠어요.

영화 <블루 사이언트>\*도 좋아한다고 했죠?

보면서 얼굴이 엉망이 될 정도로 울었다고요.

피아노를 치는 '유ки노리' 때문에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인공 '다이'도 좋지만

그렇게 모험과 꿈을 외치는 인물은 솔직히 조금 납작한 캐릭터로 느껴지거든요.

<원피스>의 '루피'나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요. 반면 유ки노리의 모습은

제게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있어요. 굉장히 노력파인데, 자기 재능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귀여운 자존심이 영화 초반부터 저를 울렸어요.

\*이시즈카 신이치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재즈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나 봐요. 요즘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인생에서 만화책을 본 시간이 가장 암도적으로 길 거예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보게 돼서 요즘은 루틴을 정했어요. 샤워하기 전에 한 편, 공연하기 전에 한 편.

무대 아이디어를 만화에서 얻기도 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거시적인 조언보다 팔을 주무르라는 단순한 말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화도 그렇게 직관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보다가 멋진 옷이 나오면 바로 차용하는 식으로요.



결국 일과 맞닿아 있네요.

가끔은 일 생각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그냥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포켓볼이나 치면 좋겠어요.(웃음)

하지만 정규 앨범 준비에 열중하느라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일과  
쉼을 굳이 분리하지 않게 됐어요.  
꼭 쉬어야 하나요.



Interview



이찬희는 지금도 계속



## Interview

종종 블로그에 일상을 올리죠. 한 편의 시 같으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느낌의 글이 재미있었어요. 요즘은 안 쓰나요?

제가 취향이 명확해서 그런지 글 쓰는 게 참 힘들어요.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거죠. 마지막 글을 1년 만에 썼는데, 쓰는 데 이틀 정도 걸렸어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던데요.(웃음)) 그렇게 안 느껴지게 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틀 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다 지워요. 저는 글을 쓸 때 한 문장이나 단어, 혹은 메타포에서 출발해 살을 붙이는데, 쓰다 보면 ‘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독자니까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강박이 있군요. 누나인 이슬아 작가가 찬희 님을 ‘늘 곤두서 있는 멀티태스커’라고 칭한 인터뷰를 읽었어요. 저도 비슷한 타입이라 동질감이 드는 한편 어떻게 이완하는지 물고 싶었어요.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많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원가를 할 때도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 마시는 것만, 먹을 때는 먹는 것만. 그리고 걷다 보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나 근심을 어딘가에 ‘두고 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래요.

직접 쓴 가사 중 딱 한 줄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어지러운 서울에서 사랑 믿는 내가 바보야.’ 2집에 실릴 ‘주인공’의 가사인데, 그게 제 진심이에요.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고 힘들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더 좋아요. 저는 완전히 믿거든요. 지금 이런 대화나 만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할래요. 그냥 관둘래요.

사랑을 믿는군요.

그럼요. 사랑 믿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동감해요. 그렇다면 ‘사랑 믿는’ 이찬희가 어떤 순간에 사랑을 느끼는지 궁금한데요.

거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수증기로 가득 찬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 멤버들이랑 같이 사는데, 원희라는 친구가 일정 관리를 맡아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항상 목이 안 좋은 저를 제일 마지막에 깨워 주죠. 그러면 세 사람이 씻고 나온 수증기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습지만 저는 그럴 때 사랑을 느껴요. 또, 꼬인 목걸이를 대신 풀어줄 때. 세 줄 레이어드 목걸이는 한번 꼬이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걸 기꺼이 풀어서 양손으로 고스란히 들고 오는 거예요. ‘나 이거 풀었다’하는 그 마음이 사랑 같아요.

조금 진부한 질문이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 하나요?

엄청 많이 하죠. 사랑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그런 내 모습까지 포용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일종의 자의식 과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선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두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모습으로 바꿔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는 친한 사람일수록 말이 세게 나가는데, 그 모습이 싫으면 오히려 사랑을 세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땐 사랑할 수 없는 제 모습을 외면해 버리기도 했어요. 성격 유형 검사할 때도 바라는 쪽으로 체크하고요.(웃음)

저도 인터뷰 끝나자마자 MBTI 검사 다시 해 보면 그럴걸요. 그 모습까지도 나인 거죠. 좋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에게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안 그러는 거,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예뻐해 주자, 싶어요.

누군가를 예뻐하는 게 쉬운가 봐요.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예뻐 보여요. 30분만 대화를 나눠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기면 차라리 제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보면 못 미워할 것 같아서.

## 이찬희는 지금도 계속



오늘 대화해 보니 과거에 했던 말들을 자주 돌아보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요. 그렇지 못한 날이 정말 부끄러운 날일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서 ‘더 멋있게 할 걸 그랬다’ 생각할걸요.

스스로 계속 바뀌어 간다고 생각해요?

네. 단순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확신이 없을 때는 하루에도 자신감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견해들을 소거하게 되고, 점차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달라진다는 건 더 나은 걸 찾았다는 거 아닐까요.

요즘 즐곧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요. 매년 새해에는 누구나 바꿔려 하지만 살다 보면 결국 넓은 습관들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니다가 이동진 평론가님이 나온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통제할 수 없지만, 짧게 보면 건드려볼 수 있다고. 하루쯤은 열심히 살아볼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하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계속 거듭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다 보면 꾸물꾸물 나아지겠죠.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니까요. 함께 믿는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해 볼까 해요. 이찬희의 사랑에 물성이 있다면?

집에 멤버들 밥해 줄 때 쓰는 거대한 웍이 있어요. 웍 안에 가득 요리된 무언가. 그게 제 사랑의 물성인지 않을까요.

